

《평등》의 대결

남소수파를 이끌고 온 김광혁의 혼란

머저리로 침묵하면 현자로 될수 있다는 속담이 있다. 자기를 알고 말해야 하고 말할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의미일 것이다. 남조선 《국민의힘》의 윤석열이 제 자신도 모르고 시도해도 모르는 그런 머저리에 속한다고 하겠다. 얼마전에 그가 의신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대북정책》 공약이라는 것을 내뱉었다고 하는데 듣느니 대결약답이요, 음미할수록 머저리라고밖에 달리 평할수 없는 것이다. 그의 공약인즉 현 당국의 《원칙이 없는 대북정책》을 《예측가능한 대북정책》으로 바꾸어 《북남관계를 정상화》 한다는 이른바 《한반도변환구상》이라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체제》의 과제를 위한 《북의 개혁, 개방추진》과 미국과의 《포괄적전략동맹》 등 《한미동맹강화》이다. 거기에 따른 《안보》문제, 미국과의 《화강역지력강화》

문제 등 횡설수설하였지만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궁극적으로 《흡수통일》, 전쟁대결이다. 《흡수통일》과 전쟁대결은 그대로 이전 보수 《정권》들이 내외의 비난과 배격에도 불구하고 죽을등살등 모르고 추진해온 《대북정책》이다. 실제로 박근혜 《정권》은 친박한 무당의 입김에 들떠 《신통프로세스》나 《통일대박》이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것들을 《대북정책》으로 내놓아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세인의 조소와 비난거리로 되었고. 《대북정책》으로 내놓아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세인의 조소와 비난거리로 되었고. 《대북정책》으로 내놓아 우리 민족은 물론이고 세인의 조소와 비난거리로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것들은 윤석열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시기와는 다른 그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도 되는듯이 광고하고있으니 까마귀 백번 목욕해도 백로될수 없는 것처럼 《동족대결당》, 《반통일당》, 《북침전쟁당》의 본성은 변할수 없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윤석열의 《대북정책》을 가리켜 《아직 만나본적도 없는 북을 상대로 주먹부터 내미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일관된 대결공약》, 《북남관계의 현 경제국면을 더 험악하게 지속시킬수 있는 공약》이라고 규탄한것이 우연치 않다. 《북남관계를 박근혜정권 시기와 같은 최악의 상태로 되돌릴 정치적화근덩어리》, 《리완용도 울고갈 투동매국노집단》. 이것이 《국민의힘》이 밀어주는 윤석열의 《대북정책》을 들어서는 남조선 각계층에서 터져나오는 비난과 저주의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말할 때를 아는자는 침묵할 때를 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엄혹한 조선반도 정세를 최악의 최악으로 몰아가려는 윤석열은 머저리라는 말도 부족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것들은 윤석열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난 시기와는 다른 그 어떤 새로운 《정책》이라도 되는듯이 광고하고있으니 까마귀 백번 목욕해도 백로될수 없는 것처럼 《동족대결당》, 《반통일당》, 《북침전쟁당》의 본성은 변할수 없는 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이 윤석열의 《대북정책》을 가리켜 《아직 만나본적도 없는 북을 상대로 주먹부터 내미는 위험한 정책》이라고 비난하면서 《북을 자극하는 내용들로 일관된 대결공약》, 《북남관계의 현 경제국면을 더 험악하게 지속시킬수 있는 공약》이라고 규탄한것이 우연치 않다. 《북남관계를 박근혜정권 시기와 같은 최악의 상태로 되돌릴 정치적화근덩어리》, 《리완용도 울고갈 투동매국노집단》. 이것이 《국민의힘》이 밀어주는 윤석열의 《대북정책》을 들어서는 남조선 각계층에서 터져나오는 비난과 저주의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당국의 무력증강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때이른 방역완화조치가 불러온 혼란

남조선사회가 때이른 방역완화조치로 인해 사회적혼란이 빠져들고있다고 한다. 방역과 일상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하면서 시작한 《단계적일상회복체계》시행과 관련한 무책임한 방역완화조치가 지금의 엄중한 방역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있다고 한다. 《북남관계를 박근혜정권 시기와 같은 최악의 상태로 되돌릴 정치적화근덩어리》, 《리완용도 울고갈 투동매국노집단》. 이것이 《국민의힘》이 밀어주는 윤석열의 《대북정책》을 들어서는 남조선 각계층에서 터져나오는 비난과 저주의 목소리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스크착용의무화 등의 방역조치들이 문란해지면서 감염자수와 중증환자수, 사망자수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자료에 의하면 《단계적일상회복체계》조치를 취한 후 1주일동안 하루평균 양성전염병감염자수는 2천여명, 중증환자수는 370여명, 사망자수는 거의 20명으로서 그 이전수에 비해 급격히 늘어났다고 한다. 한편 이 체계를 실시한 후 각종 집회와 시위건수가 대

폭 늘어나면서 양성전염병확산의 위험이 더 커지고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속에서는 《단계적일상회복체계》조치를 실시한 이후 그전에 비해 양성전염병감염자수는 훨씬 증가하였다. 이로 인한 의료계의 부담도가 커지고있다. 《정부》의 무책임한 처사로 최악의 전염병상황을 피하지 못할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커지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류현철

미국의 검은 마수가 뻗는다

최근 미국의 주요인물들이 남조선에 날아들어 여야당의 《대선》후보들을 만나며 대해 남조선의 친미보수세력이 환성을 울리고있다고 한다. 그중에는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며 미의회의 상원대표단 그리고 미국언론 《뉴욕 타임스》도 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선거철마다 발작하는 미국의 로파심이 또 도지는 모양이다. 남조선의 선거철마다 발작하는 미국의 로파심이 또 도지는 모양이다. 남조선의 선거철마다 발작하는 미국의 로파심이 또 도지는 모양이다.

우에나 미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말하자면 《대선》후보들의 대미관을 라진 하기 위한 《사상검증》과 친미관을 주입시키기 위한 상견의 《투사》과견고 《예비시험》이라고 할수 있다. 2017년에도 미국무성이 남조선정보원과 경제의 인물들

를 만나 《조기대선》과 다음 《정권》과의 관계문제를 논의한 사실, 《포린 폴리시》, 《헤리티지재단》과 같은 미국의 정책연구기관들과 언론들이 남조선정국에 대해 제 구미에 맞게 여론전을 펼친 데도 있다. 이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뉴스》를 비롯해 남조선의 여러 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의 인물들이 여야당의 《대선》후보들을 만나 한 소리들을 쥐어짜면 남조선미국간의 《동맹강화》와 경제협력문제라고 한다. 특히 그들은 남조선의 《대선》후보들에게 《동맹강화》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면서 선거결과에 관계없이 미국은 《강력한 동맹이자 동반자가 될것》이라는 것을 공명연하 드러냈다고 한다. 우에나 미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말하자면 《대선》후보들의 대미관을 라진 하기 위한 《사상검증》과 친미관을 주입시키기 위한 상견의 《투사》과견고 《예비시험》이라고 할수 있다. 2017년에도 미국무성이 남조선정보원과 경제의 인물들

최근 남조선에서 노소수의 부족으로 심각한 혼란이 일어나고있다고 한다. 노소수는 경유자들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을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는 촉매제로서 경유를 리용하는 자동차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라고 한다. 문제는 노소수의 원료인 산업용노소의 거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있는 남조선경제가 해외에서의 수출 중단으로 혼란에 빠져 든 것이다. 지금 남조선의 연유 판매소들에서는 노소수가 10배이상으로 뛰오르고 그마저도 판매하는 곳이 없어 수천, 수만여대의 물건기재들의 유행이 중단되는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소방차와 구급차를 비롯한 공공분야에 리용되는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경유차들이므로 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경제가 혼란상태에 빠지는 등 남조선내부가 아비규환에 빠져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구해왔은 현 당국이 특별대책반을 내온다. 해외에서 노소수를 긴급 수입한다 북대소들을 퍼우고있지만 당장 해소될 전망은 보이지 않고있다고 한다. 남조선경제를 불안하게 하는 수입원자재의 부족은 단지 노소수에 한 한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은 마그네슘과 수산화리튬, 희토류와 같은 희유금속 등의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들여오고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특정국가들에 국한되어있고 그 품목만 해도 4,000가지나 된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속에서는 첨단기술이 요구되는 물자도 아닌 외국산노소수 하나가 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있다. 이것이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진풍경이다. 수입주도형 경제에 피할수 없는 위기가 도래할수 있다고 하면서 남조선의 기형적인 원부자재수입의존상태에 대해 개탄하고있다고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단평 뒤골방 쪽덕공론

남조선의 민간정책연구기관인 《국가전략연구원》이 《2022년 새 정부에 제안하는 국가안보전략과 과제》라는 주제로 토론회라는 것을 가졌다고 한다. 거기서 논의된 내용이라는 것이 그 누구의 《위협》과 《도발》에 대비한 남조선군의 운영체제검점과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의 실속있는 발전 등이라고 한다.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가옥소리라는 속담그대로이다. 《국가전략연구원》이라는 것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 국방부 장관을 하던자가 원장을 하고 그야말로 군부와 외교안보분야에 종사하던 어중이떠중이들, 말하자면 친미사대와 굴종체제를 염으로 하고 분열과 대결에 기생하던자들이 그 연장으로 만들어낸것이라고 할수 있다. 실제로 원장이라는자는 그 누구의 《도발》에 대해 떠들면서 《도발원천, 지원력, 지휘력까지 단호하게 응징할것》, 《체제의 생존까지도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수 있을것》이라고 상허한 대결광신자이다.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을 염으로 삼다못해 동족을 향해 불질하기를 능사로 하던 자들과 《신통프로세스》, 《드레즈덴션》과 같은 케변을 들고다니며 지지를 구걸하던것들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겠는가야 뻔하

《경제올가미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미는 어리석은 행위》

최근 남조선에서 주요기업들이 미국과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있는데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미국기업들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있는데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미국기업들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있는데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남조선의 한 언론은 미국기업들의 《협력》에 적극 나서고있는데 대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청년층을 또 속여보려고

남조선에서 여야당세력들이 20, 30대 청년층정당에 열을 올리고있다고 한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청년공유주택》방문, 청년간담회진행 등을 편이 벌려놓고 《애로사함을 청취한다》고 하면서 청년들의 호감을 사보려고 예를 쓰는 한편 청년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청년조직》을 내오고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기본주택공급》을 비롯한 청년정책공약들을 내놓으며 분주하게 움직이고있다고 한다. 《국민의힘》메들은 《청년의 날》을 비롯한 각종 행사들이 참가한다. 야구경기장에 나타나 청년들을 응원한다고 영너리를 치는가 하면 절편퍼하해도 《투권과 반칙권결》, 《공정한 법집행》, 《공정한 입시와 취업기회보장》 등을 요란스레 광고하며 어떻게 하나 청년층을 끌어당기기 위해 분주함을 퍼우고있다. 남조선의 《경향신문》이 20, 30대 청년층은 전체 유권자의 34%를 차지하고있

며 어느 당이 그들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데 따라 다음 해 《대선》의 승패가 결정될것이라고 보도한것을 감안하면 여야정당세력들이 왜 이런 열연 행렬행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야당의 경제적 인 구애놓음은 청년들의 사늘한 배척에 부딪히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의 《연합뉴스》, 《내성신문》 등은 청년층의 대다수가 《폐쇄하고 구태의연한 기성정치인들은 믿을것이 못된다》, 《청년을 정치적으로 리용하는 기득권정치세력, 여도 야도 싫다》는 비난과 경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고 하면서 누구도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남조선언론들은 윤석열이 《국민의힘》의 《대선》후보로 된 후 20, 30대의 탈당이 급증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윤석열은 120시간로동제, 부정식품, 전두환호환발언까지 막말을 자

《평등사회로 대전환! 불평등세상을 바꾸자》

서울에서 전국로동자대회 진행 - 남조선언론들이 지난 주 주요뉴스의 주도로 《전태일렬사 정신계승 2021전국로동자대회》가 진행되는데 대해 보도하였다. 그들의 구호는 《평등사회로 대전환! 불평등세상을 바꾸자!》이라고 한다. 《불평등세상을 뒤집는 투쟁》의 시작을 알린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오로지 《로동자들의 투쟁만이 불평등세상을 뒤집고 평등사회를 만들수 있다》고 하면서 《차별과 착취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로동계급은 정권과 자본가들의 탄압과 억압을 뚫고 굴함없이, 물러섬이 없이 전진할것》이라는 결의를 표명하였다. 어느 한 발언자는 《기민과 배신의 보수정당에 기대하지 말고 우리 로동자들이 대선을 주도해 평등세상을 만들자》, 《로동자민중이 정치의 주인이 되자면 정권교체가 아니라 체제교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집회에 참가한 전국민행동공동대표는 《현 정부에서로 사회적불평등은 폭발적으로 확대되고있다》고 하면서 《로동자민중이 앞장서서 사회적불평등을 혁파하고 로동자민중이 승취고 살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고 호소하였다. 그러면서 《5년전 로동자들이 초분혁명의 선봉에 섰듯이 우리가 사회적불평등에 맞서는 초분대행진을 만들자》고 하면서 앞으로 빈민대회, 민중총력대회를 힘차게 성사시킬것이라고 호소하였다. 집회에는 민주로총과 함께 5개 진보정당(로동당, 녹색당, 사회혁명로동자당, 정의당, 진보당)도 참가하여 경제민주화실현, 사회적소수자 인권보장, 조선반도평화체제실현 등 10가지 선언을 담은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고 한다. 본사기자 한일혁



본사기자 김영범